

제 12 회 중 앙 아 시 아 성 균 한 글 백 일 장

접수번호: 2021-CAS0670

한글 성명: 글림비비 카이윌리예바

인연
 인연이란 과연 무엇일까? 사람은 인생
 을 살아가면서 이런 질문에 대하여 한
 번쯤은 생각해 마련이다. 이 질문의
 대답도 각양각색이다.
 내가 생각하기에는 인연이란 억지로
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오고
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. 우리
 는 삶을 살면서 좋은 인연을 만나 그
 소중한 인연 하나로 나의 삶이 나도
 모르게 바뀔 수도 있다는 말이다. 소중
 한 만남이 고마운 인연으로 이어갈지도
 모른다.
 나는 아주 소중한 인연을 만나 내
 인생을 바꿀 수 있었던 사람 중 한
 명이다. 그 인연은 바로 중학교 때 담
 임을 하셨던 우리 선생님이시다. 우리 선
 생님을 처음으로 만난 기억이 아직도
 생생하다. 새로운 선생님이 오셨다고 기
 뻐했던 나의 모습이 기억 속에 오래 남을

제 12 회 중 앙 아 시 아 성 균 한 글 백 일 장

접수번호: 2021-CAS0670

한글 성명: 궁림비비 카이으름리에바

것	이	다	.																
	선	생	님	은		영	어	를		가	르	치	는		선	생	님	이	있
다	.	영	어		첫	수	업		대	부	터		선	생	님	이		영	어
로		말	을		하	는		모	습	,	수	업	을		하	는		방	식
학	생	들	을		자	기		자	식	못	지	요	않	게		배	려	하	시
는		모	습	이		마	음	에		와		달	았	다	.	그		첫	수
업		대	는		선	생	님	이		나	에	게		하	신		말	씀	이
"	년	어	디	서		영	어	를		배	운		적	이		있	니	?"	였
다	.	내		글	씨	가		예	쁘	다	고		칭	찬	도		하	셨	다
그		한		마	디	와		선	생	님	이		우	리	가		잘		이
해	하	도	록		노	력	을		하	시	는		모	습	이		"	가	
영	어	를		공	부	하	게		된		계	기	였	다	.	그	대	부	터
외	국	어	에		대	한		관	심	이		나	날	이		높	아	지	게
되	었	다	.	선	생	님	이		늘		"	새	로	운		것	에		도
하	는		것	을		겪	내	지		말	아	"	,	"	언	어	는		새
세	상	,	우	주	로		나	아	가	는		것	이	다	"	라	는		말
을		하	여		항	상		나	를		도	와	주	고	,	응	원	해	주
고	,	배	려	하	는		사	람	이	있	다	.	어	떤		행	사	나	
대	회	가		있	으	면		꼭		나	를		참	여	시	켰	다	.	
게	다	가		영	어		말	고		또		다	른		언	어	도		배

제 12 회 중 앙 아 시 아 성 균 한 글 백 일 장

접수번호: 2021-CAS 0670

한글 성명: 궁림비비 카이으름리에바

위	보	라	고	하	였	다	.	외	국	어	는	호	기	심	많	은
아	이	치	럼	즐	겁	제	배	울	대	효	과	가	커	진		
다	고	값	진	조	언	도	해	주	셨	다	.	나	는	선	생	
님	덕	분	에	외	국	어	를	배	운	다	는	것		자	체	
가	하	나	의	우	주	를	여	는	것	이	라	는	것		을	
말	게		되	었	다	.	그	리	고	언	어	전	문	가	의	길
을	선	택	하	게		되	었	다	.							
	선	생	님	이	내	가	여	러	언	어	를	할	중			
아	는	흥	륭	한	통	역	사	이	자	전	문	가	가	되	기	
를	바	랐	다	.	하	지	만	나	의	그	런	무	습	을		
보	지	못	한	재	세	상	을	떠	났	다	.	그	래	서		
나	는	선	생	님	의	꿈	을	이	룰	거	라	고	마	음		
을	먹	어	통	번	역	학	과	에	익	하	게		되	었	다	.
한	국	어	를	선	택	하	게	된	것	도		선	생	님	덕	
분	이	있	다	.	이	제	한	국	의	최	고	의	대	학	교	에
익	학	하	여	최	고	의	언	어	전	문	가	이	자	통	역	
사	가	되	는	것	을	목	표	로	세	우	고		있	다	.	
공	부	과	정	이	쉽	지	는	않	겠	지	만	불	굴	의	도	
전	정	신	으	로	이	겨	낼	수	있	다	고	생	각	한	다	.
천	리	길	도	한	걸	음	부	터		라	는	말	저	럼		

제 12 회 중 앙 아 시 아 성 균 한 글 백 일 장

접수번호: 2021-CAS0670

한글 성명: 글림비비 카이으을리에바

도	전	하	고	,	이	겨	내	고	성	취	할	준	비	가	도	이
있	다	.	이	것	만	으	로	도	선	생	님	의	이	름	을	몬
세	상	에	알	리	고	함	상	관	사	하	겠	다	는	마	음	
을	전	하	고	싶	다	.										
결	론	적	으	로	,	중	학	교	대	의	소	중	한	만	남	,
귀	한	인	연	이	나	를	아	무	것	도	두	렵	지	않		
고	,	늘	새	로	운	것	에	도	전	하	는	'	사	람	으	로
무	엇	보	다	자	신	에	게	부	끄	럽	지	않	은	사	람	
으	로	성	장	하	는	데	.	큰	영	향	을	끼	쳤	다	.	
항	상	선	생	님	이	뻑	듯	해	하	는	사	람	이	되	고	
싶	타	.	이	러	한	'	중	은	인	연	을	만	날	수	있	
게	되	어	너	무	행	복	하	다	.							